

V. 부록

1. 인수위원회 주요일정

일 자	활동사항	사 진
6. 13	- 인수위원 위촉식	
6. 14.	- 찾아가는 업무보고	
6. 15.	- 찾아가는 업무보고	
6. 16	- 찾아가는 업무보고	

일 자	활동사항	사 진
6. 17.	- 인수위원회 회의(1차)	
6. 20.	- 인수위원회 회의(2차)	
6. 21.	- 인수위원회 회의(3차)	
6. 24.	- 인수위원회 회의(4차)	
6. 27.	- 인수위원회 최종보고회	

2. 인수위원회 예산 사용 명세

부문	금액(천원)	세부내역	비고
계	16,911		
사무실 임차료	0	- 문화예술회관 무상 사용	
사무실 물품구입	1,179	- 사무실 안내표지판 : 33천원 - 회의실 대형현수막 : 396천원 - 냉장고 구입 : 750천원 - 책상 및 의자 기존시설 활용	
전산용품 임차료	533	- 컴퓨터 등 전산용품 렌탈	
통신시설 설치	1,517	- 인터넷 및 전화 설치	
회의 참석수당 (12명)	13,682	- 평균수당액 : 1,140천원/1명 - 세부내역 별첨 참고	

* 인수위원 수당 지급근거 :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회의 참석자 및 회의록 등 활동자료 근거로 지급
- 「하동군 2022년도 기준 및 기본경비 편성계획」의 위원회 참석수당 적용
(기본 2시간 100천원 + 2시간 초과시 30천원 추가)
- 지급방식 : 기본수당 + 관외 위원 교통비

* 별첨. 수당 산출내역

일 자	수당액 (천원)	참석 인원	산출근거 (기본수당+교통비)	내용
계	13,682			
06.13.(월)	1,626	12명	(130천원*12명)+66천원	인수위 위촉 및 간담회
06.14.(화)~06.16.(목)	4,878	12명	(130천원*12명*3일)+198천원	찾아가는 인수위 활동
06.17.(금)	1,496	11명	(130천원*11명)+66천원	1차 회의
06.20.(월)	934	7명	(130천원*7명)+24천원	2차 회의
06.23.(목)	1,336	10명	(130천원*10명)+36천원	3차 회의
06.24.(금)	1,626	12명	(130천원*12명)+66천원	4차 회의
06.26.(일)	160	1명	(130천원*1명)+30천원	최종보고회 협의
06.27.(월)	1,626	12명	(130천원*12명)+66천원	최종보고회

3. 보도자료

경남도민신문

2022년 06월 13일 월요일

종합 03면

하승철 하동군수 당선인, 찾아가는 인수위 가동

13일부터 본격 활동...인수위원이 해당 부서 직접 찾아 토론



하승철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10일 출범 후 13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12명 이내로 구성돼 새 군정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 ▲기획행정 ▲산업경제 ▲

교육문화복지 ▲도시환경 등 4개의 분과로 나눠 균형현안 파악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공약 실천 방안을 토론한다.

인수위는 활동의 효율을 높이고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듣기 위해 '찾아가는 인수위'로 운영된다. 담당직원을 불러서 보고 받는 형식이 아니라 각 분과 인수위원이 해당 부서를 찾아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하게 된다.

하승철 당선인은 "많은 군민의 참여로 '새 시대 새 하동'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길 바란다"며 "항상 소통하는 군수로 군민과 함께 미래의 하동을 같이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성도기자

(12.1*9.6)cm

창원일보

2022년 06월 13일 월요일

종합 04면

하승철 하동군수 당선인, 찾아가는 인수위 가동

하동군 13일부터 본격 활동 돌입 인수위원이 해당 부서 직접 찾아

하승철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지난 10일 출범 후 13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12명 이내로 구성돼 새 군정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 ▲기획행정 ▲산업경제 ▲교육문화복지 ▲도시환경 등 4개의 분과로 나눠 균형현안 파악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공약 실천 방안을 토론한다.

인수위는 활동의 효율을 높이고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듣기 위해 '찾아가는 인수위'로 운영된다.

담당직원을 불러서 보고받는 형식이 아니라 각 분과 인수위원이 해당 부서를 찾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하게 된다.

특히 '소통·변화·활력'을 강조하는 하승철 당선인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동군수 인수활동에 군민의 참여를 부탁하며 주민 인수위원을 모집했다.

인원은 2명 이내로 12일까지 자기소개서와 활동계획서를 자유롭게 작성해 인수위사무실(하동문화예술회관 1층 사무실) 또는 메일(mars77@korea.kr)로 접수하

면 된다.

또한 인수위 활동기간 중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국민제안을 받는다.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우편(하동문화예술회관 1층 사무실), 이메일(mars77@korea.kr), 하동군 홈페이지 군민제안 게시판 등을 통해 제안 가능하다.

하승철 당선인은 "많은 군민의 참여로 '새 시대 새 하동'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길 바란다"며 "항상 소통하는 군수로 군민과 함께 미래의 하동을 같이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여두희 기자

(24.0*6.5)cm

하승철 하동군수 당선인 ‘군민과의 소통’



17일까지 13개 읍·면사무소 순방

하승철 하동군수 당선인이 군민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하동군/

하승철 하동군수 당선인이 ‘군민과의 소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 당선인은 지난 10일 하동읍사무소 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13개 읍·면사무소를 순방한다. 하 당선인은 각 읍·면의 발전 방향과 민생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부서별 협업을 통해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하 당선인은 읍·면사무소 순방 시 의전, 꽃다발, 현수막, 회의자료 등이 없는 ‘5無 원칙’을 강조하며 형식을 버리고

거리감을 좁히는 군정 행보를 보였다. 하 당선인은 또 지난 12일 당선인 사무실에서 박중훈 경남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군정과 교육행정의 협력을 위한 TF팀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협력해 나가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

박 교육감은 “사립과 공립으로 이원화된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 당선인은 “하동의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 처방이 교육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을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하동의 미래가 걸린 근본 문제라 인식하고 교육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철 기자

하승철 하동군수 당선자, 교육청과 정책 협력 강화



교육감 만나 전담팀 설치 논의

하승철 하동군수 당선자는 지난 12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을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나 군정과 교육행정 협력을 위한 전담팀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협력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박 교육감은 "사람과 공립으로 이원화된 교육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하동 교육 여건이 광양 등 접경지역보다 뒤쳐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하승철(오른쪽) 하동군수 당선자가 지난 12일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을 인수위 사무실에서 만나 현안을 의논하고 있다. /하동군

이에 하 당선자는 "교육은 하동의 미래다. 하

동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 처방이 교육혁신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을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하동의 미래가 걸린 근본 문제라 인식하고 교육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하 당선자는 지난 10일 하동읍사무소 방문을 시작으로 군민과 함께 호흡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하 당선자는 17일까지 13개 읍면사무소를 순방하며 각 읍면의 발전 방향과 민생 해결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하 당선자는 읍면사무소 방문 때 의전과 꽃다발, 현수막, 회의자료 등이 없는 '5무'를 강조하며 형식을 버리고 거리감을 좁히기로 했다.

/김중현 기자 kimjh@idomin.com

“민선8기 하동군정 비전 찾습니다”

하동군수직 인수위, 군정 지표 및 목표 공모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군민과 함께하는 민선8기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군정지표 및 목표 공모에 나섰다.

이번 공모는 ‘소통·변화·활력’을 바탕으로 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동의 미래비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정 지표는 민선8기 하동군의 비전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며, 군정 목표는 지속 가능한 하동, 소외되지 않는 하동, 살기 좋은 하동&살고 싶은 하동, 100년 하동 준비를 위한 방안을 5항목 내외로 작성하면 된다.

공모제안은 군청 홈페이지, 군민제안 게시판이나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명석 기자
mymy@newsgn.com

[뉴스경남] 지역 08면



"민선8기 하동군정 비전 찾습니다"

“민선8기 하동군정 비전 찾습니다”

하동군수직 인수위, 군정 지표 및 목표 공모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군민과 함께하는 민선8기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군정지표 및 목표 공모에 나섰다.

이번 공모는 ‘소통·변화·활력’을 바탕으로 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동의 미래비전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정 지표는 민선8기 하동군의 비전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며, 군정 목표는 지속 가능한 하동, 소외되지 않는 하동, 살기 좋은 하동&살고 싶은 하동, 100년 하동 준비를 위한 방안을 5항목 내외로 작성하면 된다.

공모제안은 군청 홈페이지, 군민제안 게시판이나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명석 기자
mymy@newsgn.com

하승철 하동군수 명문고 육성.종합병원 설립 통해 소멸 위기 극복



[기초단체장 당선인에게 듣는다]
무소속 당선... 고향 하동 구할 것

고향 하동군민에게 보답하기 위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동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무소속 후보로 하동군수에 오른 하승철(사진 .57)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이라는 쓰라림을 겪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위대한 하동군을 만들기 위해 한걸음 성큼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국장, 하동군 부군수, 진주시 부시장 등을 두루 거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맡았던 그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고향에서 군수에 오르는 데 성공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국민의힘 공천 경선에서 '컷 오프 되는 아픔'을 딛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공천자와 치열한 선거전에서 승리를 일궜으나

, 극도로 분열된 군민 갈등을 먼저 해소해야 할 처지다.

하 당선인은 민선 8기가 우리 군의 많은 현안과 군민의 높은 기대를 안고 출발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갖고 있다며 자신이 풀어야 할 결코 녹록하지 않은 지역 현안에 대한 고민도 내비쳤다.

하 당선인은 선거 과정과 당선 직후 전 읍면을 순회하면서 학생수 감소, 노후한 의료체계, 열악한 주거문화, 청년의 부족한 일자리 등 군민들이 걱정하는 다양한 과제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농촌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겪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한 정책들을 임기 중 가장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 특성화고교 등 명문고 육성 등 교육 문제, 지역 내 종합병원 설립 등 의료 문제가 지 선거 공약을 반드시 해결해 사람이 머물고 싶은 하동, 살고 싶은 하동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는 각오다.

민선8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동' 만든다



정천권 기자

하동군수직 인수위, 인수위 최종보고회 개최
군민과 함께하는 민선 8기 건설

(사진제공=하동군) 인수위 최종보고회 개최

(하동=국제뉴스) 정천권기자 = 하수철 하동군수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최만?)는 지난 27일 문화예술회관 자체 최종보고회를 갖고 인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 10일 12명으로부터 △기획행정 △산업경제 △도시환경 등 4개의 분과로 활동에 들어가 군정현안 파악 발굴하고 공약 실천 방안을 토

인수위는 군민과 함께하는 민공모한 군정비전 결과를 바탕으로 하동군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와 4대 군정목표를 제안했다.

먼저 군정비전은 미래비전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동' 이는 '군민의 소통, 변화

욕구를 충족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새로운 변화의 중심으로 서는 하동군', '가장 하동다운 하동' 을 의미한다.

존중과 신뢰를 담아 군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물어 진정한 군민의 힘과 함께 나아갈 때 '군민중심의 살기 좋은 하동' 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루는 하동군이 완성된다는 의미도 담고

산업경제분과는 경제 발전을 위한 스마트산업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스마트 농어촌산업, 유투피 아 하동 구축을 주문했다.

교육문화복지분과는 군정과 교육의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명문교육 인프라 조성, 군민 모두가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 공공의료 및 원격의료 확충, 관광산업의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육문화복지분과는 세대를 아우르는 체육사업과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2023하동세계차엑스포와 생활관광시대를 철저히 준비하며, 알프스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환경분과는 명품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복합도시 개발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콤팩트 시티 개념의 강성한 거점지역 육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생태전원 도시 구축, 사람이 우선인 슬로시티 및 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

그리고 대기질 개선 등을 통한 쾌적한 하동, 자원 순환사회 전환 기반 구축 등을 통한 깨끗한 하동, 각종 제해에 대한 맞춤형 대책 방안 마련을 통한 안전한 하동 구축을 주문했다.

그 밖에도 인수위는 하동경제자유구역의 정상화 추진, LNG복합화력발전 유치의 중립적 자세 견지, 대송산업단지 기업유치 방향 설정, 산업단지 명품 배후도시 조성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그리고 이날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최종보고에

앞서 인수위 기간 중 정책제안을 해 준 각계 각층의 군민 20명을 초청해 민선 8기 하동군에 바라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군민과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노인회장, 하동문화원장을 비롯한 각 단체 대표, 농촌 마케팅전문가, 입시학원원장, 교육전문가, 간호사, 커뮤니티 아티스트, 문화관광해설사, (사)숲길 상임이사, 기획자 등 주민들은 직접 겪고 느낀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민선 8기 하동군에 바라는 제안을 전했다.

특히 한 주민은 "행정을 하는 분들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변화하고 성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더 많이 주기 바란다" 고 당선인에게 당부했다.

하 당선인은 이날 보고회에서 그동안 인수위 활동에 참여한 인수위원과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그동안 소외되고 기회받지 못한 사람들을 잘 챙겨 상식과 공정, 열린 사회를 향한 하동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혁신, 교육 혁신, 미래 도시 등 3대 과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한 과제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변화의 주체로서 공무원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 이라며 그에 따른 조직개편 준비도 당부했다.

한편, 인수위는 민선 8기 하동군수직인수위원회 백서를 편찬과정을 거쳐 7월 말 출간할 예정이다.

정천권 기자 jungck2528@naver.com

